

생활문화

가정 근무제

기혼여성들 '대환영'

집에서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가정근무제는 직장일과 집안일의 이중부담을 느끼는 기혼 직장여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보처리전문회사 '에스·티·엠'의 직원인 김미경(31)씨는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그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간 뒤 집안일을 대충 끝내고 오전 9시쯤 거실에 놓여 있는 단말기 앞에 앉는다.

단말기를 켜면 화면에 컴퓨터 통신을 통해 회사로부터 전달된 그날의 업무내용이 나타나고, 김씨는 이것을 집에서 처리한다. 업무처리 결과의 보고방식도 마찬가지이다.

퇴근시간까지 자리를 지킬 필요없이 맡은 일만 끝내면 자기시간을 가질 수 있어 훨씬 능률적이라고 김씨는 좋아한다.

정보화사회의 한 모습인 '가정근무제'. 직장에 출퇴근하지 않고 회사와 집 사이에 연결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가정에서 일하

는 가정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정보사업이나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늘고 있다.

력키금융그룹의 계열사인 에스·티·엠은 올 3월부터 3개월 동안 가정근무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한 뒤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지난 5월부터는 이에 이 제도를 사규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가정근무를 하는 직원은 모두 15명으로, 희망자 가운데 업무의 성격이 비교적 독립적이어서 회사에 나오지 않고도 처리할

“단말기와 통신회선 등 가정근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대신 회사쪽에서 보면 점심값과 교통비 등의 비용이 절약됩니다. 또 이 제도가 확산되면 사무실을 축소하는 등 고정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 기획부 전태완 과장이 말하는 가정근무제의 이점이다.

이밖에도 가정근무제는 날로 심화되는 교통난 속에서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결혼 뒤 출산과 가사부담 때문에 퇴직하기 쉬운

직장·집안일 이중부담 벗고 근무 여유 소속감 상실등 부작용도...보완책 필요

수 있는 인원만 골라 시행하고 있다. 에스·티·엠은 자체 조사 결과 가정근무가 가능한 직원을 전체 직원의 약 10%인 1백50명 정도로 보고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한덕생명보험도 지난 5일부터 전산시스템 분야에 가정근무제를 도입해 현재 3명의 직원이 가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급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에스·티·엠의 전략기획부 이도영 과장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화하면 할수록 가정근무제와 같은 새로운 근무형태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러나 80년대 초반 가정근무제가 각광을 받다가 최근 들어



시들해진 미국 등의 예를 들어 이 제도의 정착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대 광수일 교수(경영학)는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지 않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및 소속감의 상실 등 부작용으로 인해 서구 사회에선 이 제도가 점차 퇴조하는 경향”이라면서 “서구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각 회사에서 가정

근무자가 기계에 매여 지내지 않도록 배려하는 보완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혼 직장여성들이 가사와 일이라는 이중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가정근무제는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꼽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인재승 기자〉